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22



뉴멕시코의 해돋이 #1 사진:남명순

COVER STORY Page 13

CONTENTS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 2	수필: 시급한 문제 이정길 : 12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 3	Cover Story: 뉴멕시코의 하늘 남명순 : 13
광고: 순회영사업무 : 4	선교: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진행 신경일 : 14
지역사회 소식: 노영준 변호사/ 김재분 집사 : 4	수필: 런던 방문기 나정자 : 15
지역사회 소식: 2022년 부흥회 개최 : 5	수필: 네 번째 사람 윤성열 : 17
해외 기업 국내유치/한국, 이집트 원전계약 : 6	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대 과거사 사과 : 18
지역사회 소식: 윤하나 양 예일대 진학 : 6	영어이야기 22 : 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International Date Line 이상목 : 19
폴란드, 한국 탱크수입/한국 전동차 이집트에 : 7	수필: 재창조되는 문화 레베카김 : 21
해외 소식: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 : 8	기행문: 아이슬란드 여행 제2편 송은숙 : 22
웃음거리가 된 표지판/ "브레이킹배드" 동상 : 8	VOA 특별 시리즈: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 25
칼럼: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초청 김기천 : 9	광고: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9
칼럼: 오! 요한 웨슬리를 태운 불! 나정용 : 10	한인업소안내/광고 : 30-32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11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제19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가시고 절실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자주 와서 들판이나 산들이 더욱 푸르러 보입니다.

지난 두 달간의 한인회 소식과 앞으로 두 달간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7월 6일부터 10일까지 풀뿌리 운동으로 위키백과 만드는 교육이 있었고 강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7월 27일에는 6.25 참전용사들의 초대를 받아 Recognition Ceremony에 김기천 목사님과 이지수 사무총장님, 이영혜 부회장님과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8월 14일에는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우리는 우리 역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고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조선의 왕자 이유가 원폭에 크게 다칩니다. 8월 7일 조선의 왕자 이유는 일본에서 사망하고 조선에서 8월 15일로 장례식이 결정됩니다. 장례식은 미루어지고 그 날 낮에 일본 천황은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한다고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8월 15일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치범과 독립운동가가 석방되면서 만세 소리가 온 대지를 뒤덮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닌 유일한 휴전국가입니다. IMF를 가

장 빠른 시기에 극복한 유일한 나라이고 이제는 세계 10위안에 드는 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9월 17일에는 한미 장학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덴버 세미나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산타페 St. John's college의 홍유만 양과 UNM의 김효림 양과 올해 입학하는 이세라 양이 받습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효림 양이 산타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에 산타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바이올린 연주자인 세라 양이 함께 연주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유난히 음악과 골프에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한국의 차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9월 27일에는 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니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30일 저는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석차 한국에 갑니다. 여건이 된다면 뉴멕시코 한인회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8월에는 한인회에 이현숙 씨가 100불 고용분 씨가 2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치 축제에 3,000불을 후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회에 많은 교민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한인회장 윤태자 드림.



6.25 참전용사 Recognition Ceremony에서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행사



주동환 원장의 위키백과 강의

한국학교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뉴멕시코 학부모 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쉽게 지치게 만들던 뉴멕시코의 강렬한 태양열도 각 학교의 가을학기 개강과 더불어 그 열기가 서서히 수그러 드는것 같습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8월 20일에 가을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7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무사히 여름방학을 마치고 건강하게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학생들의 한글학습 열기에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아담한 교실들은 쭉쭉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덕분에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지난 봄학과 마찬가지로 한글 수업이 끝난후에 1시간씩 태권도 수업이 있으며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무료로 태권도 수련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등록하시어 한글학습과 태권도 수련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국학교 총 연합회와 이사회에서 주최한 차세대 리더쉽 행사를 마치고 우리 한국학교에서 여러가지 자원봉사를 해온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통령 자원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인 김가는 양과 이홍 군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사막속의 섬에 위치한 뉴멕시코

한국학교를 배려해주신 총 연합회와 이사회 임원분들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을 못한 동료 자원 봉사자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 같아선 자원 봉사자 모두에게 상을 수여하고 싶었지만 피자처럼 나눌수도 없고 졸업장처럼 모두에게 줄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아쉬움으로 가득찬 제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 커뮤니티와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전 한인회장 조규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한글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과 한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수있도록 \$2500.00 상당의 전자칠판을 기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이지숙님께도 감사드리며 무명으로 물품들을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면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구형 TV가 있는데 학습활동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신형 TV가 꼭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수업때 입을 단체 도복을 후원해 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이 계시는 분은 한인회장이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나 교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교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사랑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아동반 특별활동



한글 학교 태권도 수업

날짜	태권도	시간
08/26/2022	C	1:15 ~ 2:30
09/03/2022	C	1:15 ~ 2:30
09/10/2022	C	1:15 ~ 2:30
09/17/2022	C	1:15 ~ 2:30
09/24/2022	C	1:15 ~ 2:30
10/01/2022	C	1:15 ~ 2:30
10/08/2022	N/C	1:15 ~ 2:30
10/15/2022	C	1:15 ~ 2:30
10/22/2022	C	1:15 ~ 2:30
10/29/2022	C	1:15 ~ 2:30
11/05/2022	C	1:15 ~ 2:30
11/12/2022	C	1:15 ~ 2:30
11/19/2022	N/C	1:15 ~ 2:30
11/26/2022	N/C	1:15 ~ 2:30
12/03/2022	C	1:15 ~ 2:30



성인반 수업 (배현희 선생님)



아동반 특별활동

노영준 변호사 글로벌 로펌으로 옮김

그동안 미국 알버커키와 산타페에 소재한 종합 법률회사인 Cuddy & McCarthy LLP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해온 노영준 변호사가 2022년 10월 중으로 글로벌 로펌인 Rimon 종합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뉴멕시코 정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해서 시 변호사로 일을 해왔으며, 이번에 리먼 로펌으로 이직 하게 되었다. 리먼 로펌은 13개국 (한국 포함) 46개 도시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200여 명이 넘는 변호사와 페이스북, 아사나, 샤오미, 엠지엠, 후지필름, 및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등의 주요한 글로벌 기업 및 미국 정부의 법률대리를 해 오는 미국내에서 best law firm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노 변호사의 언어 실력과 다양한 경력을 인정받아 기존 글로벌 탑 로펌의 채용방침 (미국 내 10대 명문대 로스쿨 및 미국 내 100대 로펌 근무 경력 요구 등)에 부합되어 과격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입사하게 되었다. 노 변호사는 당분간 그동안 해오던 시 업무를 계속 볼 것이지만 점차 아시아 그룹 변호사들과 협의를 통해 아시아 기업의 미국 내 투자나 업무 협약 등에 대해서 점차 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 변호사는 이직한 후에도 한인회의 자문 변호사 역할은 계속 할 것임을 알려졌다. 그리고 노 변호사가 처음 변호사활동을 시작 할때 뉴멕시코 한인회 및 지역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앞으로 재미 한인의 권리 향

상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인 로비 활동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리먼 로펌의 새로운 연락처를 이직이 완료되는데로 광야의 소리에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Rimon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https://www.rimonlaw.com/>



부고 김재분 집사

산타페한인교회의 조용일 장로님 장모님이시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정종문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재분 집사님께서 지난 7월17일 95세를 일기로 소천 하셨습니다.

고 김재분집사님의 장례예배는 목요일 7월21일 French funeral & cremation(7121 Wyoming Blvd. ABQ NM87109)에서 드렸습니다.



2022 년 하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9 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2 년 9 월 27 일 화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뉴 멕시코 한인회관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인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2022년 부흥회 개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는 9월 22일(목)부터 '회복'이란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한국 속초교회 담임이시며 엠마오로 가는길 영성 디렉터이신 김동준 목사이다. 집회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주일예배를 포함하여 6번에 걸친다. 한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강사: 김동준 목사

속초교회 담임목사,
한국 엠마오가는길 영성디렉터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석사)
DREW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목회학박사)



부흥회 일정

2022. 9. 22 (목) - 25 (주일)

주제: 회복

9/22 (목) 저녁 7:30,
거룩함으로 내일을 맞으라 /
민수기 11:18-23, 31-32

9/23 (금) 새벽 6:00,
돌아오라 내가 다시 세우리
라 / 예레미야 15:15-21

9/23 (금) 저녁 7:30,
붉은 줄을 따라 / 여호수아
2:15-21

9/24 (토) 새벽 6:00,
기도 향기 3종 세트 / 호세아
14:4-9

9/24 (토) 저녁 7:30,
베데스다의 축복 / 요한복음
5:2-9a

9/25 (주일) 오전 11:00,
멍에 사용설명서 / 마태복음
11:28-30

2022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 부흥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Revival

주제성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
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회복
주제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Restoration

- 일시: 2022. 9. 22 (목) - 25 (주일)
- 장소: 알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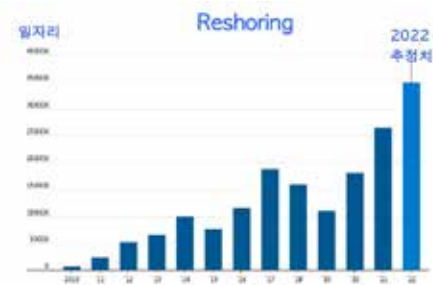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341-0205

- 강사:  김동준 목사
속초교회 담임목사
한국엠마오가는길 영성디렉터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석사)
DREW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목회학박사)

해외 기업 미 국내 유치에 박차를 가하다.

8월20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신문이 미국 기업은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올해 거의 350,000개의 일자리가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외에 나가있던 기업의 국내 복귀하거나 해외 기업체의 투자에 의해 창출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그룹이 2010년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개의 회사가 미국내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Micron Technology Inc.는 메모리 제조에 대한 투자를 400억 달러 규모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Ascend Elements는 켄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리튬 이온 배터리 재료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대기업 SK 그룹은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서 새로운 Packaging 시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 수소 생산 시설에 2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기업체의 리쇼어링



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달(8월)에 통과된 칩 및 과학법령(Chip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소법령

한국,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계약

한국이 2009년 아랍 에미리트(UAE) 원전(原電) 건설을 따낸 이후 13년 만에 해외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한국의 여러 신문에서 보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의 원전 산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5억달러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8월25일 밝혔다. 한수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원전 회사인 로사톰 자회사 ASE가 수주한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물 등 80여 건물·구조물을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 핵심 설비인 주 기기는 아니더라도 보조 기기 공급 등을 통해 원전 중소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Inflation Reduction Act)은 모두 반도체, 전기 자동차, 의약품과 같은 제품을 위한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할 때 세금 감면 및 기타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다.

(사진)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전경.

윤하나 양 예일대 대학원 진학



2013년 이콧 앨버커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2017년 미주리주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를 summa cum laude로 졸업한 Rachel Youn(윤하나)양이 2022년 코네티컷 소재 예일대학원 School of Arts에 진학하였다.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recruiter로 4년간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였는데 그동안 국내, 해외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였고 독일, 홍콩, 그리고 현재 뉴욕 갤러리에서 전시중인데 지난 5월 독일 베를린 전시회에서는 지역 방송국에 소개되었다.

Rachel Youn은 이번 예일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10 명만을 선발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Rachel Youn은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윤성열 목사/윤혜경 사모의 따님이다.



폴란드, 한국산 탱크 980대 구매 계약

폴란드가 7월 27일 한국과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날 한국으로부터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은 근래 이뤄진 계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규모의 계약이라고 말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자료사진)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생산하고,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 그리고 K2 전차는 현대로템이 각각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48대의 FA-50 경공격기는 역대 최대 수출 규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년 중반까지 12대의 경공격기를 인도한 이후, 정비(Maintenance)와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을 위한 센터를 폴란드

에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체 K2 전차 가운데 180대는 올해부터 인도가 시작될 예정으로, 나머지



80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먼저 48문이 폴란드로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는 이후 600문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식에 참석한 폴란드의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술과 비용, 무기 배치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의 국방 수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3%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VOA 뉴스 2022-7-28

현대로템, 이집트와 지하철 전동차320량 공급 계약



현대로템이 이집트 정부와 5억6천만 달러 규모의 지하철용 전동차 공급 사업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NAT)과 8월24일(현지 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 지하철 2, 3호선용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민관 합작으로 설립된 국영철도산업회사(NERIC)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NAT가 발주한 전체 사업 규모 약 6억5600만 달러 중 지분 86%를 차지하며, 나머지 14%는 NERIC가 가져간다.

현대로템은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카이로 지하철에 사용될 신형 전동차 320량(2호선 56량, 3호선 264량)을 공급하게 된다. 카이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노후한 탓으로 에어컨이 탑재돼 있지 않았었다. 신형 전동차에는 에어컨이 탑재된다. 현대로템은 납품 후 8년 동안 유지 보수도 병행한다. 또한 현지에 차량 제작 기술을 이전하며, 이를 위해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한다. 현대로템은 2012년 카이로 1호선에 전동차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3호선)과 2019년(2호선)까지 수주 실적을 쌓아왔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연방(소련) 대통령이 8월30일 사망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을 앓아 오다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린 개혁과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했다.

고르바초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군축과 냉전 종식,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 자유화 등 세계 평화 정착에 앞장선 공로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방세계에서는 고르바초프가 큰 명성과 인기를 얻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소련의 몰락을 초래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여론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초반에는 좋은 관계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평화 협상이 속



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쟁 반대 입장을 내놓았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약력

1931.3 러시아 남부 프리볼노예 출생
1985.3 소련 공산당 최연소 서기장 취임(54세)
1985.11 레이건 미 대통령과 제네바서 첫 정상회담
1987.12 레이건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1989.12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냉전 종식' 공식 선언
1990.9 한국·소련 공식 수교
1990.10 노벨 평화상 수상
1991.8 공산당 서기장 사임
1991.12 소련 해체
2022.8.30 별세

'브레이킹 배드' 배우의 동상 컨벤션 센터에



알버커키를 세상에 널리 알린 영화로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 영화에 견줄만한 영화가 없다. 이 영화는 알버커키에서 촬영한 영화로 2008년 1월 시즌 1이 첫 공개되었고 2013년 9월 29일 종영하였다.

영화의 주연과 조연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틴(왼쪽)과 아론 폴이 지난 금요일(7/29) 다운타운 알버커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브레이킹 배드'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브라이언 크랜스틴은 드라마 시리즈 남우 주연상을 4번 받았고 아론 폴은 남우 조연상을 세 번 수상했었다.

'Breaking Bad' 촬영지를 보여주는 관광 여행사의 프로그램이 오늘까지도 알버커키 방문 여행객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제작업체 실수로 잠시 웃음거리가 된 하이웨이 표지판

이 기사는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 7월30일 포스팅 했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사인판에 잘못된 점이 무엇 인가요? 알버커키, 앨버커키에 사는 분이면 10초 이내에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ㅎㅎㅎ

300년전에 실수로 알버커키 이름에 'R' 이 하나 없어졌는데 오늘에 와서 남아있는 R 글자 하나 마저 또 지워진 같은 실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곧 한 시민의 신고로 잘못된 사인판은 철거되고 신속하게 다시 고쳐 세웠다고 합니다.



칼럼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에 초청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오는 9월 11일 주일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82년 9월 12일 저녁 7시에 25명의 교우들이 한 가정에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담임 목사가 없어서 산타클라라 한인연합 감리교회에 시무하시는 김고광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 테이프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 장소 또한 돌아가면서 개인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모였지만 1982년 10월에는 김고광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 강좌를 갖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불편함이 생겨 St. Stephen 연합감리교회 건물을 빌리게 되었고 1982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19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의 예배 설교만은 김고광 목사님 설교 테이프대신 LA에서 우연히 방문하신 장로교회 조병식 목사님께서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에서 미국에 이민교회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 셋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된 세 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처음으로 파송을 받은 분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정용치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에서 진관 감리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던 정용치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 1984년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나 알버커키에 도착하셨지요. 1984년 12월 2일에 정용

치 목사님은 정식으로 담임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배 처소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뉴멕시코 대학 한인 유학생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교인들도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라 교회 재정이 약해서 담임 목사님은 파송한 연합감리교회 선교국의 지원을 받아야 했지요.

이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에 가입하게 된 것은 1985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연회 감독님(Bishop Schowengerdt)과 감리사님(District Superintendent Dr. Elkins)이 오셔서 정식으로 연합감리교회로 받아주신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차츰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시작하게 되었고 성경공부도 하게 되면서 교회가 변화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1985년 11월에 예배처소를 St. Paul 연합감리교회로 옮기고 정용치 목사님은 5년이란 파송 연한이 차자 1989년도에 뉴멕시코를 떠나 LA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그해 6월에 2대 목사님으로 김학수 목사님께서 취임하시고 1991년 4월에는 예배처소를 Trinity 연합감리교회로 옮기게 되었지요. 김학수 목사님께서 9년간 목회를 하시고 1998년 9월에 3대 목사님으로 송종남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송종남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동안에 현재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2003년 3월에 첫 예배를 본 건물에서 드렸습니다. 송종남 목사님은 약 6년간 목회하시다가 텍사스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2004년 6월에 제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도 40년 동안 뉴멕시코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을 모아 오는 9월 11일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40주년 기념예배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9월 12일 창립일 축하 케이크

오! 요한 웨슬리를 태운 불!

1950년 6.25 사변 후 한국 사회는 극도로 무질서하였습니다. 내 고향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부산하게 움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전 광장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 늘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꽤 넓은 그 광장 중앙에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펫, 트롬본 같은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힘차게 귀에 익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 ‘이 있으며, 후렴을 부를 때는 더욱 힘차고 당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알고 보니 그들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구세군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그 힘찬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력에 압도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조용히 서서 있는 그들에게, 그때까지 힘겹게 흘러가던 시간은 갑자기 멈추어 선 듯 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은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찌나 내 어린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지, 지금까지도 눈만 감으면, 복잡한 세상을 평정하듯 힘차고 당당했던 그들의 불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한

동일한 불 때문이었고, 결국 그 뜨거운 불이 윌리엄 부스를 통하여 구세군을 창설케 하였고, 성결교와 감리교의 불씨가 되어 온 세계를 불태웠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그 불의 발자취를 밟아 보려는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평생소원이 될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Drew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목회자 되기 위하여 3년의 M. DIV.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졸업하였으나,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감리교 목사답게 요한 웨슬리의 '불'로 나의 가슴을 채우지 못한 쓸쓸한 느낌만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년의 S.T.M.과정을 더 밟으며 요한 웨슬리 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책에서 만나기도 하고, 함께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Oxford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선교사로 미국에 오기도, Bristol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평신도 전도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십자가 군병들을 양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뜨거운 '불'에 의하여 매일 매일 살았던 삶의 현장에 내가 직접 가서 그 '불'을 함께 누리고 싶은 더 큰 소원으로 발전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Drew 신학교 학창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개척 하였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습니다. 시작한 지 4년 만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상하신 인도하심으로 'Chartered'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New Jersey 연회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새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Iron 감독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오셔서 직접 설교도 하시고, 세례를 집례하시며, 마음껏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Arcola 교회의 전신인 Passaic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였습니다.

Hallelujah!

그 후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New Jersey에서 가장 오래된 Wesley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로 나를 파송 하시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에 Francis Asbury의 전도로 세워진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Asbury는 요한 웨슬리가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파송한 Circuit Rider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 목사님같이 Oxford를 나온 수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땀장이 아들로 태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 준 땀장이 일뿐이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의 불이 그의 가슴을 태우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파송 받은 미국 땅에 와서 말을 타고 스승보다 더 긴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

고, 자기가 살 집도 없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못 배웠으나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황량한 시절, 말을 타고 이곳저곳에 다니며 전도하던 Asbury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 하심에 따라 위험한 Passaic 강을 용감하게 건너, 지금의 Belleville New Jersey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나이 어린 두 소녀였습니다.

마침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 주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Timing이었던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의 이름을, 자기를 파송한 스승 목사님의 이름을 좇아 Wesley Methodist Church라 명명하였고, 그 역사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이야!

나는 담임 목사 명단을 처음부터 쭉 내려가며 세어 보았습니다. 93번째 내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누가 한국 사람인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John Wesley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던 불은, Francis Asbury 에게로 옮겨붙어 미국을 불태웠고, 그 불은 미국 땅에 살고 있던 Henry Gerhard Appenzeller에 전하였고, 그의 가슴 속에서 탄 불은 한국 땅에 살던 무수한 인생들을 불태우더니, 이제는 그 뜨겁게 불붙은 우리들을 통하여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거꾸로 불태우고 계시지 않으시는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John Wesley 에게 내려 주신 불의 현장, 영국을 지난달에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 천국으로 불러 가시기 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의 기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 2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한국에서 방송한 ENA의 수목드라마 시리즈이다.

미국 CNN은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어 이름은 ‘Extraordinary Attorney Woo’)가 넷플릭스에 서도 전세계 시청자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7월 20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이 대형 로펌에 취직하여 변호사로 살아가는 ‘우영우’ 변호사의 얘기를 소개하며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또 한번 한국 드라마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ENA 역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최종회는 전국 시청률 17.5%를 기록하며 한국 케이블 TV 역사상 7번째로 높은 시청

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왕복할 때도, London 거리를 걸을 때도, Oxford 교정에서도, 그가 성령 불로 뜨거운 체험을 했던 Aldersgate 거리를 찾을 때도, 최초로 노방 전도를 실시했던 Bristol에서도, 그와 펠레야 펠수 없는 전도 동역자였던 동생 Charles Wesley 집 앞에서도 뜨거운 은혜는 충만했었습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내가 경험한 고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 나를 새롭게 하음을 여러분과 함께 소상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

를 기록했고, 시청자 수 기준으로는 6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우영우’는 한국 ENA 방송과 동시에 넷플

릭스를 통해 31개 언어로 더빙되어 세계시장에 방영되었다. 넷플릭스의 블로그에 의하면 “‘우영우’는 4~17일 2주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非)영어 TV 드라마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이미 8개국에서 1위를 했고, 22국에선 톱10에 들었다”고 밝혔다.



게 허락해 주신 Albuquerque 연합감리교회 담임 김기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소리’ 편집장이신 이경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호에서 다시 볼 때까지 웨슬리를 뜨겁게 했던 동일한 불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활활 뜨겁게 타 오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불이 꺼져 신앙이 정체되는 순간 삶의 타락은 건잡을 수 없이 닥쳐오는 법이며,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는 듯 자명하니까요. 오늘날보다 더 ‘나태한 마음’을 불태워 버리는 ‘뜨거운 불’이 절절하게 필요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시급한 문제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인류가 지금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보건 위생, 신뢰성, 불평등, 기후, 경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한층 심각해졌다.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기후의 변화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가 세계 도처에서 기록적인 가뭄 · 산불 · 폭염 · 폭우 · 태풍 등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행병에서 이제 막 벗어난 우리는 지금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환경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위협은 갈수록 심해진다. 그에 대처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자는 교토 의정서가 1997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되었다. 2015년에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졌고,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구성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별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5년 마다 목표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하자고 결의했다.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합의한 파리 협약의 신 기후 체제가 시작된 2021년은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되었다. 유럽 연합의 지도자들은 당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나머지 2030년까지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수준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5개 국가의 전문가 400여 명이 모여서 기후를 평가한 IPCC의 제6차 보고서가 2022년 4월에 공개되었다. 기온 상승 수준을 낮추려면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2050년까지는 84%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더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기온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파리 협약이 체결된 이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졌다.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2030년에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약속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농업 환경 개선, 산림 보존, 전기 자동차 보급, 항공 및 해운 등 장거리 수송 분야의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 기후 정책 금융의 활성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면서 동시에 심해지고 있다.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지 오래인데, 기후의 변화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2021년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초대형 산불, 심각한 가뭄, 기

록적인 열파, 녹아내리는 빙하, 해수면의 상승, 맹렬한 태풍 등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지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처우는 우주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켜 지구에 위해를 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상당 수의 사람들은 태풍이나 열파 한두 가지를 기후 변화와 연계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름의 극단적인 날씨가 전에 없는 파괴와 죽음을 초래한 그 해 9월에 실시된 예일 대학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기후의 변화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구는 분명 더워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류의 잘못 때문이다.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의 층이 서서히 두꺼워지면서 지구 표면에 있는 열의 방산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기후는 실체적 진실이 되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학자 아레니우스 Svante A. Arrhenius는 1896년에 이미 석탄이 탈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덥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태양의 직사 광선을 반사하는 극지방의 얼음이 줄어들면 거무스름한 넓

COVER STORY

뉴멕시코의 아침 저녁하늘



남명순

사진 애호가

뉴멕시코주에 관심이 많은 동부에 사는 친구의 권유로 산책할때 마다 스마트폰으로 들꽃과 하늘의 사진들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주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 산책을 하게 되면 야생화를 많이 찍었고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할때는 해뜨는 하늘 또는 해지는 하늘의 노을을 많이 찍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하늘은 이곳에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뉴저지주의 하늘보다 더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늘 갖었지만 아침 저녁의 일출 일몰시에는 이 넓은 하늘이 신비로운 장관이란것을 사진을 찍으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몬순시즌이 시작되면서 구름이 자주 나타나고 일출 일몰의 하늘은 변화 무쌍한 경치를 보여줍니다. 뉴멕시코의 아침과 저녁 하늘은 그 자체가 미술 작품입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담기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경치이지만 흠길위에서 느낀 감동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나마 찍어 보는것

입니다.
〈사진과 글쓴이 소개〉
사진을 보내주신 남명순씨는 뉴저지에서 뉴멕시코로 2004년에 이주해 오셨다. 남편 이병현씨는 벨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후 부부는 먼저 이곳에 와서 정착한 따님가족의 권유로 알버커키로 이주해 오셨다. 이곳에 먼저 온 사위 (Dr. Wayne Kuang :Urology Specialist)는 뉴멕시코 Outdoor life를 너무나 좋아하여 이곳으로 직장을 정해 왔다고 한다.
(편집부)



뉴멕시코의 저녁하늘 #1(위), #2(아래)



뉴멕시코의 해돋이 #2

은 바다가 그 광선을 흡수하여 극지방이 더워진다. 온 지구촌의 산악 지대 빙하가 녹는 바람에 1900년 이래 해수면이 20센티미터나 높아져 곳곳에서 침수 사태가 벌어진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상이나 바다의 습기를 공기 중으로 이동시켜 강우량이 적은 곳에서 심한 가뭄을 초래한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비나 눈이 과다하게 쏟아져 홍수나 눈사태를 일으킨다. 생태계가 영향

를 받아 야생 생물들이 피해를 입는다. 동물들은 추운 곳을 찾아 이동하고, 식물들은 높은 산꼭대기로 떠밀린다. 이미 자취를 감춘 것들도 있고, 머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

기후의 변화가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떨쳐 버려야 한다. 사고 방식을 근본

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온 인류의 사회 · 정치 · 경제적 미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 변화는 비상 사태다. 늦기 전에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전에 비하여 큰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난리가 나면 도망칠 수라도 있지만 [危邦不入], 이대로 가다 가는 갈 곳도 없어진다.

선교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진행되고 있다

신경일

목사

(전)UNM병원Chaplain



현재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첫째는 세속적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이고 예수도 믿지 않고 유대교 (Judaism)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전 인구의 7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통 (Orthodox) 유대인인데 Zionist 들이고 자기 오만에 빠진 정통 유대인인데 20%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Messianic Jew인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2%에 불과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새로이 건국되었을 때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고 교인이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독립 후 10년에는 수만에 이르렀고 정부에서 선교활동 금지령을 내렸지만, 한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78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라고 굳게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필연적으로 꼭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에서나 혹은 아랍국가에서 시작하는 것 만큼 고난과 핍박이 따르며 정통 유대인의 공격 대상이 되며 교회당을 불 지르며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권총을 주면서 자결하라고 합니다. 너는 부모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배반하였으니 나가 유대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Diaspora Jew가 되었고 반유대주의로 멸종 위기를 면하고 십자군 전쟁, 스페인종교재판 히틀러의 Holocaust를 극복하고 살

아남은 민족이고 노벨상의 1/3을 차지한 우수하고 끈질긴 민족입니다. 사무엘 상 12장 22월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하실 것이며” 를 굳게 믿습니다. 선교는 1980년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온 세계에 파송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Civil War) 후에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몰몬교, 제칠 안식교, 여호와 증인 등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과 배도로 현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 이장림이 나와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1994년 10월 24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지만, 가짜 사기란 것이 드러나 종말 재림 신앙이 한국에서 사라져 버렸고 기독교 신자의 1%만이 종말과 재림 휴거를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만 믿는다고 합니다. 왜 현대교회는 종말과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파수꾼(Watchman)의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가 나와서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은 전무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자라고 비웃고 조롱받기 때문입니다. 종말(End Time)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두 가지를 꼭 명심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그때와 그 시기를 말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로 현실도피를 하지 말고 깨어 있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벤전 4장7절)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 선교의 문도 닫히고 있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마태 24 : 7절)은 6 개월째 접어들고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 (20만 추정)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필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14명 정도가 L.A. 지역에 살고 있는데 광야의 소리를 떠서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깨우쳐 많은 은혜를 받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뿔소 TV World Bridge Mission 대표 박영민 목사를 잠깐 소개 합니다.

박 목사는 25년 동안 열방의 도시와 아프리카, 몽골, 네팔, 중앙아시아를 다니며 활동하다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 작전실의 7,000여 명의 기도 용사들과 생방송 온라인(Online)으로 작전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교회가 위축해진 가운데서도 작전실 기도회는 박 목사의 영적 Leadership으로 3년 동안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ndtime의 강력한 Message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것입니다. 100만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깨우기 위해 불철주야로 성령 세례와 7시간 방언 기도

<16 페이지로 계속>

수필

런던 방문기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벌러덩~
안개 낀 런던거리를 상상했었다. 그러나 안개없는 런던 풍경은 뉴욕이나 별 다를게 없었다. 짙은 눈썹에 커다란 검은 눈동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파키스탄 계통의 사람들이었다. 길거리 행인의 대세를 이룬 그들에게서 한 발 뒤로 물러 서 주려다가 벌러덩~ 뒤로 넘어졌다. 내 뒤에 한 뼘쯤 되는 턱이 있는 줄 모르고 발을 뒤로 내딛은 탓이었다.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나만 주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순찰차로부터 ‘괜찮으냐?’, ‘병원이 필요하냐?’...등등. 80년만의 나의 첫 런던 입성 신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원만한 잔칫날 같은 호텔 아침식사에 시간가는줄 모르던 나에게 “엄마, 3분 후에 우버가 오니까 3분후에는 나오셔야 해요” 우리내외의 소대장 격인 딸남이의 똑떨어지는 지휘에 따라 런던에서 옥스포드까지 세기의 행진은 시작되었다.

딱 3분후에 나타난 우버 기사는 역시 파키스탄 아저씨. 런던에서 1시간 30분 남짓 걸리는 옥스포드까지의 우버 요금은 80파운드(~97불), 돌아 올때는 130 파운드(~158불) 로 그 유명한 철도 노조 파업으로 차편이 드물었다. 당시 영국왕이었던 헨리 8세와 토마스 울찌 추기경의 작품 Christ Church College에 도착했다. 고딕체 우아한 고풍격의 건물 담 밑에 길게 가꾸어진 보라색 자스민의 짙은 향기가 학교 안으로 안내한다. 황홀하다. 옥스포드시 안에 있는 39개의 대학들을 통털어 옥스포드대 라고 한단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한가지. 존 웨슬리가 공부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웨슬리

는 18세기를 살았던 영국 국교회 High Church로 알려진 성공회 신부였다. 그 성공회 문을 열어 보자면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먼저 등장한다. 왕권을 휘두르며 아들 선호병에 혹독히 걸려있던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들을 폐위시켜 런던탑에 감금해 놓는가 하면, 분명 아들을 낳법한 젊고 싱싱한 앤 불린에게 정신이 팔린다. 당시 영국은 로마 교황청의 처리하에 있었기에 마구 얹힌 헨리 8세의 결혼들이 로마 카톨릭과의 강한 불화를 이르게 되자, 헨리 8세는 크롬웰과 함께 “영국 국왕이 영국을 다스린다” 는 주장령을 발표한다. 이것이 소위 잉글랜드 종교개혁 즉 영국 국교회 성공회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헨리 8세의 혼을 잡았던 앤도 아들이 아닌 딸을 낳는다. 그 딸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이룬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인 것이다. 영화 ‘천일의 앤’ 중에 아장아장 걸음걸이 하는 딸을 왕처럼 반듯이 껴안고 우아하게 걸으라 훈련시키던 집념의 앤의 당돌하고 애처롭던 장면이, 피냄새 나는 영국의 여왕 탄생 기록이 아직도 생생한데.

불현듯 워싱턴 디 씨 한국전 기념비에 커다랗게 새겨져 있던 문구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가 또 머리를 쳐든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요만큼 앞뒤 선후를 가릴수 있는 질서 위에 살게 되기 까지에는 누군가는 목숨을 바쳤고— 또 누군가는 피눈물 나는 헌신으로 대가를 치렀음이라! 그것을 아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가를 다구쳐 묻는것 같다. 웅변이다.

56세를 살고 간 헨리 8세. 아직도 피냄새 가시지 않는 런던 탑 옆으로 안개 사라진 템스 강변이 그냥 텅텅하기만 했다.

다 알고 있으면 런던탑을 끼고 흐르는 템스 강물은 도무지 말이 없다. 폐위된 캐서린의, 메어리의 피맺힌 한이 보기에도 컴컴하고 숨막히는 런던 탑 꼭대기에 아직도 서려있는듯 아찔하다. 말 그대로 웅장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세인트 폴 성당은 왕성하던 교세의 흔적을 구경하느라 하루종일 관광객들로 우글거렸다. 하루 가지고는 다 둘러볼 수조차 없는 초대형 석조물 된 모습에 제대로 섭섭함조차 느끼지 못한다.

웨슬리 사역지로 그의 기념관과 기념교회가 있는 브리스톨을 가려고 기차를 탔다. 기차는 다른 차들 못지 않게 빨리 달리는 데도 편안하고 편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는 창밖 풍경들은 납북 시인 정지용의 시 ‘향수’ 의 한 귀절을 어렵잖게 끄집어 내는게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곳이 차마 잊힐리아...

88세를 향수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프리처로 탄광촌이나 시장골목, 감옥이나 어디든 피곤하고 약한이들을 찾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를 알리느라 말을 타고 지구

둘레 열바퀴 만큼을 달렸단다. 과연 집에는 얼마나 머물렀을까? 그러니 무슨 연유이었는데는 몰라도 늦은 결혼이었음에도 부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가. 세계를 전도 교구로 삼은 웨슬리! 내 남편이 그토록 흠모하는 웨슬리의 삶! 과연 그에게 임하셨던 뜨거운 성령 체험 없이도 그런 열정에 부합하여 끝내 부부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나 라도 그렇게는 못 살았을거야’ 그여 몸쓸 소리를 내 뱉고 말았다.

하늘에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는 가다가 땅으로 추락하지 않으리라고, 바다 위에 유유히 떠 가는 유람선은 물 속에 절대 빠지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믿음, 아니 의심조차 없이 올라 타고 즐기면서도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다’ 를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늘 그랬듯이 또 민망하다.

웨슬리 기념예배당. 100석 남짓되는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는 예배가 있었다. 마침 주일 예배였다. 고개를 거의 75도쯤 추켜 들어야 설교자를 보게끔 설교단이 높았다. 성공회 신부인 웨슬리가 아무데서나 설교하는 것을 막으려는 행패꾼들 에게 쉽게 붙잡히지 않도록 한 배려였단다. 마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선교 합창단의 순회공연이 있어서 모처럼 감격 영기는 예배를 드릴수 있었다.

가는데 마다 오랜 전통과 비릿내 나는 역사가 내 노라 버티고 있는 이곳에서 존 웨슬리, 존 번연 같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을 뽑아 내시다니...함부로 상스럽지 못한 입을 다물 뿐이었다.

오래 전 얘기가. 10년이 넘도록 연회의 도움을 받아 오면서도 자립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그 사역을 버티지 못 해 목자까지 떠나버린 교회... 몇 남지 않은 성도들... 이 한인교회를 이제는 정리하겠다는 연회의 통보였다. 그라운드

작업에 10년여의 땀과 수고뿐 아니라 그 곳을 향하여 주야장창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은 어찌할 것인가.

‘그렇지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젊은 목사님을 두번이나 추천했음에도 연회에서는 요지부동. 결국 다급해진 내 남편이 서둘러 그 신음하는 교회 담임을 자원했던 기억이 천둥에 번개처럼 왔다 가곤 하는데, 얼핏 웨슬리 열정을 흠모하면 다 이렇게 피곤하게 되는구나 싶어 고개를 가로 저었었다. 그러나,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도리없고 고달프고 막막했던 그 때가 가장 보장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가장 웨슬리 스타일, 그저 말씀을 따르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그 상황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기쁨, 세상에 저 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살게 해 주었으니 해가지날수록 ‘그때 참 잘했다’ 싶어 가슴 뿌듯하다. 할렐루야!

지금도 시계의 초침은 짹짹 현장의 사실들을 쉬임없이 실어 나른다. 우리는 오래 기억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셈할 것인즉, 어떤 유명 사회학자는 “역사는 재단하고 문학은 치유한다” 라 했던가. 가슴을 쏘아 낸 문학인들의 외마디가 때로는 불치같은 서러움을 도려내 준다는 말이였다.

그러나 나는 내심 되짚어 다짐한다. 우리는 해 맑은 멀쩡한 날 태어났다 사라지는 하루살이가 아니다. 예기치 못한 비바람과 허기진 짐승들이 출몰하는 거친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영원을 가는 순례자들이다. 거듭되는 생존의 위협과 거기에 따르는 서러움의 치유 정도가 아니라 도중에 겪는 그 고통의 실과 허가 우리들의 순례로 말미암아 마땅한 믿음으로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비록 영성했을지라도 설레며 찾아왔던 웨슬리의 고향에서 숨은 그림 찾듯, 퍼즐을 맞추듯 순례의 며칠을 지냈다. 시도 때도 없이 번덕심한 세상 것에 휘둘리느라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에게 승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느라 편히 안주하지 않았던 웨슬리! 그러나 현지에선 오히려 그 열기가 오래전 먼 나라 이야기 기록같이 희미해 진 것 같아 적잖이 섭섭했다.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마음이 흠어지지 않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또 무거운 짐을 지느라 단잠을 설치며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뿐 아니라 숨쉬게 하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비록 흥부네 곳간 같을지라도 다급한 이웃을 위해 즐겨 곳간문을 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수히 증거되지 않았던가! 분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마다 그 이름은 여전히 기억될 것이라. 할렐루야!

심중에 새겨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상기하며 영원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선다.

우리는 영원을 가는 순례자다.

이스라엘의 복음화.... (계속)

를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 International 서울 김포 영광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Internet YouTube를 click 해서 코빨소 TV에 들어가셔서 박영민 목사 설교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심지어 중국, 북한등지 에서도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Evangelizing of Israel is on the progress according to God's plan. We have to go back to Bible.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be secure. Be prepared to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nd rapture into the heaven. God bless us! Encourage us! Halleluia!

수필

네 번째 사람

1914년. 영국의 극지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Ernest Shackleton)은 그의 대원 27명과 함께 남극대륙 횡단에 도전한다. 하지만 그들은 남극대륙에는 발을 디뎌보지도 못하였고 바다가 얼어붙는 바람에 배가 난파되어 결국 배를 버리고 남극해를 떠다니는 부빙에 몸을 옮겨 싣고 이들은 그때부터 634일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을 만나게 된다. 그 좌절과 고통,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절망 등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새클턴 선장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처참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온 대원이 똘똘 뭉쳐 불굴의 의지와 투혼을 발휘한다. 식량이 떨어지고 그들은 펭귄을 잡아먹고 마지막 썰매개도 잡아먹으며 참혹한 추위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선장의 리더십에 따라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이들이 마지막 구조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일들은 인간의 생존 드라마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다.

그중 압권은 천신만고 끝에 대원들을 망망대해의 한 무인도에 안착시킨 탐험대장 새클턴이 다섯 명의 대원을 데리고 구조를 요청하러 떠나는 장면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건 길이가 6m에 불과한 구명용 보트 한 척. 그것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하다는 1,28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 몸을 맡긴 채 해발 3,000m에 달하는 전인미답의 얼음산을 넘어 그들이 애초 출발했던 사우스 조지아 섬의 기지에 조난한 지 634일째 되는 날 기적같이 도착, 칠레 정부가 급파한

군함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 대원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다. 선장 새클턴은 훗날 이렇게 고백한다. “길고도 험했던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해발 3,000미터의 얼음산을 3명이 넘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이틀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이상하게 생각돼 나중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동료 워슬리(Worsley)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 크린(Crean)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한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난 믿는다.”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놀라 소리쳤다. 네 번째 사람! 오래전에 처음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나는 목이 메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롭고 가끔 다시 읽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멍하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그 우상의 땅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네 번째 사람은 오늘날 뽕뽕 얼어붙은 남극



윤성열

담임목사
앨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의 또 다른 극한의 절망 가운데 세 사람과 함께 같이 산을 넘으셨던 거기에 계신 그 네 번째 사람(여호와 삼마)이 아니신가. 인내와 용기와 믿음과 희생의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27명의 부하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구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험한 길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선장은 약속을 지켜 돌아와서 그들을 구조했다.

사랑하면 줄 수 있다.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한국 지도책을 펴 때마다 늘 내 시선이 한곳에 머무르는데 경상북도 문경 근처의 단산(해발 935미터)이다. 1982년 8월의 타는듯한 폭염 가운데 나는 팀장으로서 12명의 엘리트 부하 팀원들을 이끌고 그 단산을 넘고 있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유혹이 밀려오곤 하던, 5주간의 전술훈련과 유격훈련에 이어 6주 차, 5박 6일에 40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야 하는 살인적인 지옥의 천리행군, 몸과 마음은 이미 충분히 너덜너덜한데...어느 날 7~8부 능선에 이르니 모두들 물이 떨어져 장정들이라도 힘들어 험한 분위기. 나도 똑같이 목말랐지만, 그날 산에 오르며 채운 수통의 물을 수 시간 동안 웬지 거의 마시지 않고 견디고 있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물은 피와 같다. 부모라도 쉽게 줄 수 없는 것. 나는 나의 수통의 물을 나의 부하 팀원들에게 돌렸다. 열두 명

17페이지

'네번째 사람'에서 계속

의 입을 돌아 나에게 한두 모금 남아돌아 왔다. 그때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분명 나는 보았다. 우리는 힘을 얻어 산을 넘을 수 있었다. 나의 자랑스러운 팀원들! 자식들! 모두 들 보고 싶다.

그렇다. 사랑하면 줄 수 있다. “아빠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라고 한다. 작년 아내가 아프신 아버지를 보러 멀리 친정 필라델피아에 다녀왔다. 보통 2주를 다녀오는데 그때는 시간이 되어 4주를 다녀오게 되었고, 전에는 공항에 픽업하러 갈 때 장미꽃 세 송이를 들고 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아내가 그 먼 길을 가서 다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땀도 달려가 장미꽃 3더즌을 사 품에 가득 안고 공항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아내를 환영하는데 참 마음이 즐거웠다. 나이 들어가면서 아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20대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 중 언성이 커지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머니는 무척이나 슬펐다 며칠 뒤, 아들과 외출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만약 어떤 나마가 네 애인을 울리면 어떻게 하겠니?” “그냥 둘 수 없죠. 흠씬 때려줄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 엄마 울리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거든.

”최근 설교 초청을 받아 타주 세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 장미꽃 스토리를 전하니 자매님들이 즐거이 들으며 환영하였는데 모두들 한결 같이 하는 말, “이 인간 오늘 집에 가면 나에게 죽었다”라며 튼실한 팔뚝을 걸어 올린다. 아직 그들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교황, 캐나다 원주민 학대 과거사 사과



지난 7월 25일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해,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19세기 초반,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아동을 위한 이른바 기숙학교를 만들었는데 당시 가톨릭교회가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대부분의 시설을 위탁 운영했다.

캐나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 140개 학교에 약 15만 명의 어린이가 수용됐던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문화와 언어 등을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세웠지만, 당시 수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와 강제로 떨어졌으며, 이들 기숙학교에서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캐나다 북부에 있는 기숙학교 부지 3곳에서 1천200구 이상의 원주민 아동 유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교황은 25일 에드먼턴 기숙학교 부지

를 방문해, 과거 기독교가 원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특히 많은 기독교인이 서구 방식을 강요하고,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동화정책에 협조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교황의 사죄에 원주민들은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다. 어떤 주민은 교황이 연설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치며 경청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 감정적 동요 없이 침묵으로 교황의 연설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생존자는 50년 동안 이 사과를 기다려왔으며, 마침내 오늘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부터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주민들중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팻말을 들고 교황의 손을 잡고 그의 축복을 받기도 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날 정부 관리들과 함께, 교황의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Latitude (위도), Longitude (경도), and International Date Line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러시아(Russia)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행기 속도를 knot으로 나타내는데, 주된 이유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를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도는 적도(equator)를, 중심인 0°로 잡고, 위로는 북극까지 북위 90°, 아래로는 남극까지 남위 90°로 전부 180°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볼 때 편의상 북극을 위에 표시하기 때문에 위도는 평행선이라 생각하여 6.25사변의 상징인 38선을 38 paralle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로로 그어진 경도는 영국 London의 교외 Greenwich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잡고 남극과 북극을 연결한 자오선(meridian)으로 동쪽으로 180° (+) 서쪽으로 180° (-), 도합 360°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그은 가상선입니다. 각(degree)을 사용하여 상대적 거리를 나타낸 자오선을 경도(longitude)라 하며 동경 120도처럼 각도로 거리(angular distance)를 나타냅니다. 1도(°)는 60분('), 1분은 60초(")로 세분됩니다.

위도는 완전한 원이지만, 경도는 반원(semicircle)입니다. 북위 23.5°는 북회귀선 (Tropic of Cancer), 남위 23.5°는 남회귀선(Tropic of Capricorn), 북위 66.5°는 북극권 (Arctic Circle), 남위 66.5°는 남극권 (Antarctic Circle)이라 부릅니다.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는 같은 지점으로 영국 Greenwich와 180

도 정반대에 있는 자오선으로 New Zealand의 오른쪽바다, Alaska의 서쪽 지역인 Aleutian Islands (알루션열도: 미국영토임), Bering Sea (베링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바뀌는 날짜변경선인 International Date Line은 이곳을 기준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뒤죽박죽인데, 이곳을 지나거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그다음 날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경제적 이유를 든 경우도 있으나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Samoa는 서반구(서경 172.4°)에 위치해있어 미국 쪽의 시간대에 있다가 호주나 New Zealand가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제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동반구에 위치한 New Zealand (동경 178.8°)의 시간대로 2011년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70km 떨어진 Samoa 바로 옆에 있는 American Samoa(미국령 사모아)와 시간은 같으나 날짜는 하루 차이가 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Samoa가 수요일 오전 10시면, 이웃인 American Samoa는 전날인 화요일 오전 10시가 됩니다. 심지어 날짜로는 이틀(2일) 차이 나는 곳이 중부 태평양 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Hawaii 위치는 서경 156.5°쯤인데, 이 경도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 적도 부근에 3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Kiribati란 섬나라가 동서로 있습니다. Kiribati는 “키리바스” 또는 “키러배스”로 발음합니다. 이 중 22

개 섬에만 사람이 살고, 1,800 mile(약2,900 km)에 걸쳐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은 길게 거의 서반구에 있는데, time zone은 동반구를 택해(즉 180도 왼쪽), 시간은 같으나 날짜는 Hawaii보다 하루가 빠릅니다. Hawaii가 수요일 오전 10시면, Kiribati는 다음날인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만약에 영국시간이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라면 미국령 Samoa는 Fiji 오른쪽에 위치한 New Zealand랑 Niue 섬과 같이 전날인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Kiribati는 미국령 Samoa나 Niue보다 하루가 빠르면서 1시간 차이가 나서(수학으로 표현하면 +25시간 차이), 자정을 넘어 수요일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 0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미국령 Samoa와 Kiribati는 경도상으론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만 날짜로 이틀이(2일) 차이 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Kiribati가 무리하게 날짜 변경선을 정한 결과입니다.

Kiribati에 속하는 Kiritimati(키리스마스)섬은 Christmas 섬으로 1960년대 미국과 영국이 핵실험 하던 곳입니다.

위도와 경도는 서로 직각으로 만나 4각형을 이루어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위치표기를 할수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로 이루어진 4각형의 크기는 적도

부근에서 가장크고 극에 가까울수록 작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4각형을 grid라 부릅니다.

Grid로 표시한 Albuquerque는 DM65입니다. 설정된 위도와 경도로 보는 Albuquerque의 위치는 35.085°N, 106.65°W 즉 북위 35.085도와 서경 106.65도 입니다. 기준이 되는 자오선을 “Prime meridian”(본초자오선) 이라고하며 0도입니다. “Meridian”은 글 자체는 “midday”를 뜻하는데, 천체를 기술할때 태양이 머리위에 오는 정오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오선이라 하는데, 자오선은 남북을 잇는 선이므로, 옛날 우리나라에서 방위를 나타내던 12지(支)중의 자(子: 북쪽)와 오(午: 남쪽)에서 나온말입니다. 12지에 동물 이름을 갖다부쳐 쥐띠, 말띠처럼 12개의 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12지는 시간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하루는 24시간인데 12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支가 2시간을 나타냅니다. 자시(子時)는 밤 11시~새벽1시, 오시(午時)는 오전 11시~오후1시를 뜻하였기 때문에 옛날시제로 “午時에 만나자”고 하면, 오전11시와 오후1시 사이에 만나면 되니 약속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겐 꿈같은 시간관념으로 보입니다. 12지는 10간과 더불어 60갑자를 만들어 2022년은 임인(壬寅)년은 호랑이띠고, 내년은 계묘(癸卯)년으로 토끼띠입니다. 첫조합인 갑자(甲子)가 60년후에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므로 만60세 생일을 환갑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10간(干)은 10일, 즉 1순(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칠순은 70, 팔순은 80, 6월중순은 6월중간의 10일정도를 뜻합니다. 10간은 우리가 잘 아는 갑을병정(甲乙丙丁)으로 시작하여 계(癸)로 끝납니다. 12지는 자축인묘(子丑寅卯)로 시작하여 해(亥)로 끝납니다.

자오선 0도에서 동경180도(또는 서경 180도)까지 각기 동서로, 동쪽으로는 시간이 더해져 12시간 (+12시간)까지, 서쪽으로는 시간이 감해져 12시간 (-12시간)까지 감해집니다. 동경 120도를 지나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이 앞서있고, New Mexico는 영국보다 7시간 늦습니다. 여름에 Daylight Saving Time을 실시하면 1시간을 보태던지 빼야 합니다. 여름에 시간을 당기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기때문에 1884년 Prime Meridian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Greenwich천문대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그리니치 표준시간(GMT: Greenwich Mean Time)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은 매년 조금씩 이동하므로, 1984~1988년 위성에서 측정한 data를 비롯한 여러정보로 Prime Meridian과 반대쪽인 동경180도 (또는 서경 180도)를 자른 단면이 지구중심을 지나도록 정의한 결과, 새로 0도로 지정된 Prime Meridian은 Greenwich보다 동쪽으로 102.5 m 떨어진 곳입니다. 영국도 여름에 British Summer Time (BST)를 실시하기 때문에 GMT 시간이 아닙니다. GMT가 그동안 표준시간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1972년 지구자전과 원자시계(Atomic clock)를 사용하여 표준시간인 UTC를 제정하였습니다. UTC는 “Coordinated Universal Time or Universal Time Coordinated”의 약어입니다. GMT와 UTC는 둘다 표준시간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GMT는 일부국가에서 Time zone을 나타내는 반면, UTC는 시간자체를 나타냅니다. 필자가 아마추어무선을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에는 GMT 또는 Zulu(Z)로 표준시간을 표기하였는데, 지금은 UTC로 표기합니다. 군대에서는 Zulu time으로 표시하여

15:00Z처럼 표기합니다.

음력은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달력이라 한달이 29.5일 입니다. 그래서 일년 12달은 354일이 되어 지구의 공전에 기준을 둔 태양력과 일년에 11일정도 차이가 나서 음력은 2년5개월 ~ 2년10개월마다 계절을 맞추기위해 한달을 더 집어넣는 윤달(leap month)이 있습니다. UTC는 원자시계(Atomic clock)와 정확한 지구자전시간에 기초하여 시간을 정하는데, 원래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에 기반을 두고 정한것이라, 기후와 지각변동에 의하여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로, 원자시계로 측정하는 시간과 오차가 생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위해 UTC는 필요시 1초를 더하는 윤초(leap year)를 두고있는데, UTC와 지구자전이 0.9 초이내에 있도록 조종합니다. 지구가 한바퀴도는 시간을 solar time(태양시)이라 하는데 Universal Time(UT1)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기전 사람들은 배로 바다를 건너 항해를 하였기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비행기도 항해하는 선박과 마찬가지로 위치를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였지만, 육지에서처럼 길 표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속도를 재는 단위가 knot(노트)가 된것은 예전에 밧줄에 같은 간격으로 매듭(knot)을 만들어 일정시간에 풀린 밧줄의 매듭수를 세어 속도측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1 knot와 지금의 1 knot는 거의 비슷한데, 위도 1°의 60분의 1인 1'(1분)거리를 표준으로 삼아, 1929년 제정된 1 해리(nautical mile)는 1.852 km 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mile(1.609 km)보다 조금 긴 거리입니다. 1노트는

1해리를 1시간에 가는 속도입니다. 항해지도는 위도와 경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지도상의 1'(1분)이 1해리이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더 정확하고 편하였기 때문에 지상에서 사용하는 km나 mile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항로도 항공지도에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있어 비행시간과 속도조절에 knot를 사용하는것이 유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의 기본이 되는 1 m(meter)는 오랫동안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를 10,000,000으로 나눈것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이용하여 빛이 299,792,458분의 1초에 가는 거리를 1 meter로 삼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매질(medium)에 따라 변하는데, 진공에서 가장 빠르며 또한 불변의 속도이지만,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약 4분의 1이 감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필

재창조되는 문화

레베카 김

남부뉴저지한국학교 교사
브레이버맨 센타 원장



시루떡은 잔칫날의 상징이다. 어르신들의 교회 산수는 물론 아이들의 백일 첫돌 잔치에 어김없이 올리는 기쁨의 덩어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엘파소까지 무거운지 모르고 들고 갔던 손자 둘 시루떡, 마냥 기쁘고 행복했다.

초등학교 시절 아들은 금덩이고, 딸은 금의 번쩍이는 빛에 가려져 그림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오빠가 독학으로 일차 고시시험에 합격하고 부모님은 잔치를 벌였다. 지지고 볶고 삶고 무치고, 생선부침은 물론 내가 좋아하던 잡채와 고등어볶음이 초록색과 빨간 고춧가루에 옷을 입고 상위에 촘촘히 놓여졌다. 그 위층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마치 자기인 양 한껏 분위기를 띄워주었던 시루떡. 무지개가 뭉개뭉개 피어오르고 건포도가 ‘축하’라고 글을 써주었고, 보기만 해도 기뻐던 가족의 기쁨. 그 시루떡은 온 동네에 돌려졌다. 지루해하던 멍멍이가 신이 나서 함께했고, 어르신들은 맨발로 나와서 축하하고 떡을 받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나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이 뿌리는 미국을 건너와 사십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흙과 뭉치고 다져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석인교수의 학술저널에 의하면 “정체성의 형성은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민세대들의 문제이다”라 하지만 문화의 재창조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역시도 어떤 때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균형 맞추어 사는 걸 포기한다던가, 한국문화를 저 멀리 버렸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더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을지, 그 문화를 어떻게 내 자신이 습득하여 주위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하며 고민한다. 미국문화에 젖어지지 않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의 첫 시집이 출간되었을 때 이웃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었다. 같이 공부하는 글샘터 회원님은 물론, 부족하지만 이메일로 메시지로 격려와 관심과 용기를 불어주었던 님들과... 그 시루떡은 모두에게 돌려졌고, 그리고 기뻐다.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다면 확실치 않은 몇 분에게 어찌해야하나? 혹시 시루떡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당뇨가 있기에 꺼려하지는 않는지, 떡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시루떡보다는 콩이나 달콤한 검은깨가 있는 떡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지...

십년이 지난 후 아직 내가 있다면, 나의 재창조되는 문화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님들께 돌렸던 시루떡, 다음에는 각각에 맞는 떡으로 인절미, 꿀떡, 영양떡, 두텁떡, 경단, 약식, 그리고 맛갈 나는 케익으로 돌리리라.

(2022-08-20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편집부)

기행문

아이슬란드 여행 제2편

아이슬란드의 여름은 아름답다.

링로드 8일 일주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아이슬란드 일주 여행의 출발은 레이카비크에서 인접해 있는 골든 서클을 거친 후에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도는 링로드를 반 시계 방향으로 여행했다. 아이슬란드는 레이카비크 수도 이외에도 동쪽에는 항구도시이며 낚시/연어, 송어 양식장 등으로도 유명한 에질스타디르가 있고 북쪽에는 제2의 도시 아쿠레이리가 있다. 서쪽으로 와서는 스나이펠스 반도에 있는 아르나스타피라는 작은 마을을 보고 레이카비크로 돌아오는 링로드 8일 일주를 마치게 된다.



레이카비크에서 여행의 첫 출발은 그 유명한 빙하폭포와 역사가 담긴 골든 서클(Golden Circle)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골든 서클에서 싱벨리르를 먼저 거친다. 이곳은, 세계에서 최초로 의회가 처음 열린 곳이며(서기 900년)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마을이 보존되어있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곳이다. 이곳 싱벨리르 국립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이어서 탁월한 자연경관이 탄생하게 된 곳이다. 공원에서 화산잔해로 쌓인 언덕 사이의 오솔길을 걷자니 신기하

고 자연의 크고 작은 폭포는 눈부시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열 지대인 게이시르 스토쿠르의 간헐천은

매 4~10분마다 솟아 뿜어나오며 높이가 15m에서 20m 길게는 40m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인기 높은 관광지이다. 또한, 크비타강의 빙하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굴포즈폭포는 "황금의 폭포"라 불릴 만큼 강력하고 빙하수가 무려 32m(105ft)의 높이의 2단으로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최고의 폭포이다. 지하로는 지열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Green House)의 크고 작은 농작물로 생활해나가며, 위로는 깨끗하고 청량한 빙하수가 흘러내려 식수를 이용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빙

하수가 흘러 강줄기의 호수 속을 보는 스노클링이 아주 인기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노클링은 바닷속의 각종 해산물과 산호를 보는 것에 비해 이곳의 스노클링은 맑은 빙하수 물속에 잠겨져 있는 화산이 지나가 만들어진 잔해의 길을 고스란히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철저한 장비와 보온 수장을 입고서 하기에 얼음장 같은 물속을 2~3시간 다니면서 특별한 모험을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주식은 해산물과 육류 중 양고기이다, 집집마다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면서 각기 자신들만의 비법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해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각 음식의 요리를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 농장에서 키워서 올려놓은 어린 양고기의 맛은 이례적으로 깊은 맛이 있고, 생각하는 노린내가 전혀 나지 않은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요리에 빙하수로 만든 아이슬란드의 맥주 맛도 곁들여 먹으니 한량이 부럽지 않다. 내 입맛이 다 맛있는 건가? 나만 이러는가? 싶었는데, 동행한 손님들 또한 너무 맛있다고 즐거워하신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이 나라는 대구, 송어, 연어가 주식이다.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은 아이슬란드는 그래서 이민을 일찌감치 받아들이며 각 유럽 국가 음식 및 아시아 음식들을 먹을 수 있으나, 단 한국식당은 없으나 한국 음식을 할 수가 있는 몇가

지 상품은 판매되고 있다. 그중 반가운 것은 신 컵라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루 하루 다른 음식들을 먹으며 한식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음식들이 다양하게 맛이 있지만, 며칠만에 보는 컵라면을 먹어보면,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 역시 맛이 진한 우리네의 음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꼭대기에서 맛본 신 컵라면 만큼이나 반가웠다.

하루하루 지루할 틈이 없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한여름이지만 가벼운 패딩은 꼭 필요했다. 빙하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몰라 허리에 묶고 다녀야 했고, 똥똥 떠다니는 얼음바다 (Jokulsarlon) 다이아몬드 해변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 신발 바닥이 모두 떨어져 버린 거다. 에구구~~ 이런 사건이... 이참에 핑계 대고 아이슬란드산 단단한 등산화를 장만했다. 어느새 남쪽(Vik)을 지나 동부 (Hofn)로 이동하고 있었다. 위로는 빙하요 아래로는 화산이며 온천이다. 천지가 인터내셔널 국립공원이다. 빙하 물로 차인 바다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얼음이 똥똥 떠다니는 얼음조각 산을 볼 수 있으며, 빙하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힘들지 않게 멋진 모험을 할 수 있다. 3시간이 걸려 빙하 트레킹을 오르면서 수억 년에 쌓여진 빙하 굴속의 신비함도 보면서 자연을 탐험한다.

북동부쯤 도착하면서 꼭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바로 ‘미비튼 자연 미네랄 온천(Myvatn Nature Baths)’이다. 아이슬란드에서 유명한 “블루라군” 온천이 있지만 바닷물의 지열로 끓여온 천연 미네랄과 알칼리성이 많이 함유되어있으며 유황이 섞여 있어서 천식 및 기타 호흡기질환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유황온천인 미비튼은 자연경관과 함께 즐기는 이곳을 사람들은 이 미비튼 온천을 하고 나오면 10년이 젊어 보인다고 할 만큼 유명하다. 하루의 여행을 완수하자니 온몸이 바쁘다. 휘날리는 머리에서부터, 눈요기, 먹고, 오르고 내리기를... 이빠지기도 쉽지 않다. 모든 여인이 모이자, 오늘은 10년 젊어져 보자~~. 비록 내일 그대가 나를 몰라볼지언정!!



아이슬란드 제2의 도시 아쿠레이리 도시에 도착하니, 그동안 다녀온 조용하고 작은 마을로 다니던 것에 비교해 사람 사는 것 같다. 항구도시라서 그런지 대형 쿠티즈도 와 있다. 긴 시간 차로 이동을 한 후의 저녁은 이 고장에서 유명한 연어회를 맛보았다. 빙하수의 물속에서 힘차게 차고 올라간 것일까? 연어의 맛은 매우 부드럽고 더욱 고소한 맛이 특별한 별미였다. 북쪽인 이곳은 겨울이면 북극 오로라를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분주하다. 천지가 오로라로 밤새 눈부신 곳이어서 1년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겨울에는 8일간의 링로드 보다는 수도인 레이카비크에 호텔을 정하고 남부와 북부를 오가



며 오로라를 관광한다. 밤이 긴 아이슬랜드의 보석 같은 은하수에 얼어붙은 강가와 호수의 그림자는 한층 더욱 그림처럼 환상적이다. 북극 오로라는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볼 수 있으나, 구름이 끼는 날이면 볼 수가 없는 것이 단점이고 이곳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산과 구름 사이를 가로질러 서쪽 스네이펠스네스로 향해가고 있었다, 아이슬랜드의 모던지역은 동서남북 각기 그 아름다움이 서로 다르지만, 난 유난히 서부에 있는 스네이펠스네스반도를 즐긴다. 스네이펠스네스를 미니 아이슬란드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볼거리가 많으며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다. 스나이-흰눈, 펠스-언덕, 네스-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네이펠스네스의 반도내에서는 너

아울 수 있다. 미역과 다시마들로 가득 찬 해변에서 아주 우연히 갓 태어난 아기 물개를 보고 너무나 행복해했다. 연신 하품하며 자다 말기를 하더니 쳐다보는 우리네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편히 잠들어 버린다.

어미가 바다로 먹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새끼가 울면 급히 달려와 아기를 보호한다고 한다. 새끼보호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성애는 모든 동물과 인류에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않을까? 물개가 있는 곳에는 늘 고래가 있기 마련이라는데, 덩치 큰 고래는 민물이 거세게 들어왔을 때 물개사냥을 한입에 물어 나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바위에 걸려 썰물에 못 나간 고래는 그 자리에 수장되다가 썰물에 휩싸여 나간다.

있으며 그리고 갈매기의 우렁찬 소리에 함창이라도 한 듯 고요함을 갈라놓는다, 갈라진 동굴 사이의 다리를 걸어보자, 바다 물속의 환상적인 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잊지 못할 추억 한 장도 만들어 보자.

레이카비크로 돌아오는 석양은 한층 더 아름다운 아이슬랜드의 꽃 “루핀(Lupine)의 보랏빛은 황혼을 보라 빛으로 더욱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행복을 느낀다.

아이슬랜드의 2번째 여행이 내 평생이 될듯한 만큼 매혹되어있다. 그 누가와 보지 않고는 아이슬랜드가 좋다고 할까? 신비하고 청청한 나라 아이슬랜드에서 말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며, 빙하수의 폭포를 보고, 빙하산을 타며 땀도 흘려보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녀보았다. 세상 어느 곳에 가나 내 하기 나름인 것,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행복하면 그 어느 재벌이 부럽지 않은 거겠지... 다 함께 즐겼던 이번 여행이 행복지수 100점이라고 했다. 이번 여행, 아이슬랜드를 같이 간 모든 분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하고 싶다.

~ 자연 찾아 삼만리...~



무 많은 곳을 관광하게 된다, 영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키르쿠펠산은 463m/1,519ft의 높지 않은 초록 이끼로 둘러싸여 삼각형의 모형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에 한층 돋보여 많은 사람의 사진 속에 여운을 남긴다.

이트리통가(Ytri Tunga), 흰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이곳은 물개들이 서식하는 곳, 6~7월이면 해변가에서 물개들이 서로를 뽐내듯이 멋진 포즈를 담

마지막 목적지인 스나이펠스 반도의 아르나스타피(Arnarstapi)마을은 해안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며, 예전에는 어업에 종사했으나 지금은 예술가들의 장소로 유명하여, 사진작가, 화가들이 모이는 곳이다. 해안을 따라 언덕으로 산책로를 거닐면 카트글리트르 바위(Gatklettur)는 “구멍이 뚫린 바위”의 뜻을 한 거대한 암석 사이에 힘찬 파도가 밀려와 아치형 바위에 서 부서지는 아름다움과 바다를 볼 수

여행명언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다. 그러므로 세상 탐험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이먼 레이븐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샘이다.

-안데르센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집-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8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6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국제 안보 환경은 물론, 식량과 에너지 등 사회·경제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을 짚어보는 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 합니다)

■ 바이든 ‘사상 최대’ 30억 달러 군수 지원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29억8천만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군수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한 31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수천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하고 수백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독립기념일이 씁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대공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소형 무인기 요격체계(CUAS)와 포병 시스템을 포함한 다수의 무기, 레이더 등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꾸준히 군수와 인도적 지원을 진행해온 가운데, 이번 발표는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등 군수 지원은 총액 130억달러선에 이릅니다.

■ “압재에 항거하며 민주 정부 지켜내”

이날(24일)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에 의한 악랄한 폭력과 파괴에 6개월 동안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용기와 신념으로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우크라이나)은 압재(러시아)에 항거하며 고유의 유산을 방어하고 민주 정부를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30억달러 규모의 군수 지원을 발표했다"고 소개한 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중장기 자체 방어 체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독립 이후 줄곧) 31년간 지지했으며, 이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에 강력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젤렌스키 “끝까지 싸운다”

6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대대적인 공세를 선언하면

서, 전면 충돌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은 24일 "우리에게 전쟁의 끝은 무엇인가, 전에는 평화라고 했지만 이제는 승리라고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녹화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시작된 6개월 전을 회고하며 "우리나라는 2월 24일 새벽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태어난 나라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겁에 질리지도 않았다"면서 "누구도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잊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6개월간 굳건히 버텼다. 힘들지만 주먹을 꼭 쥐고 우리 운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긴 여정을 거친 우리로선 끝까지 가질 않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전체로서 우크라이나다. 어떤 지역도 양보나 타협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그 길이 어떤 것이든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일대)와 크림반도(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군대가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땅만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 '크림반도 탈환 목표' 공식 선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을 통해 되찾겠다고 전날(23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의)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며 "우리 영토인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크림반도 수복이 세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안보를 되찾기 위해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무력을 파견한 뒤 주민투표 형식을 빌려 병합했지만, 국제사회는 이같은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지상군을 보

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공습 지원 차원에서 주요 도시 목표물을 향한 미사일 발사 기지로 크림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750발에 달한다고 이날(23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이날 언제든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도 크이우(러시아명 키예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러시아의 공격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만약 그들이 우리(수도)를 공격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세계 경제 질서 급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을 맞는 동안 세계경제 질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원자재·공업·공급망 체계가 붕괴하면서, 각국에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에너지·자원·식량 무기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사용 위협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하고, 중국이

각종 상품과 중간재를 생산하며, 서방 선진국이 러시아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반러시아·반중국' 글로벌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 수입과 서방산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칩4(Chip4)' 동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일본, 타이완이 참여하는 이 동맹에 한국까지 가세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공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비롯한 서방은 에너지 수요를 러시아 대신 새로운 수입국으로 돌리고, 대체 에너지 수단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방 주요 기업들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따라왔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물량을 줄이면서 겨울 유럽의 에너지 요금 급등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1%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의 생활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동시에 진행하는 제재로 경제적인 손실을 맞고 있는 상황

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올리가르히(신
흥 재벌 특권층)의 막대한 자산이 동결
됐고,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의 수출
길도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군사대국' 위상 훼손

러시아는 이번 전쟁 초기 수도 크이우
함락에 실패한 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에 고전하면서 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
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러시아군은 소모전으
로 일관했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무
기와 병력을 투입했지만 미국과 서방국
가들의 첨단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
나군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점령지인 돈바스 일대와 남부
헤르손, 남동부 거점 항구도시 마리우
폴의 통제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 고위 정보 관계자는 23일 VOA와
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자국산
무기와 군사력을 얼마나 부풀려 홍보
해왔는지가 이번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
다"고 평가했습니다.

■ 우크라이나군 전사 9천명...러 시아는 4만5천명 넘어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래 방
어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9천
명에 육박한다고 22일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 인사가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
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아
버지가 전선에 나갔고 9천명 가까운 전
사자 영웅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퇴역
군인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수치 공개는 지



난 4월, 개전 이래 3천명이 숨지고 1만
명이 다쳤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이번에 밝
힌 수치가 국경수비대와 지역 민방위
대 등 관계 병력을 포함한 것인지는 확
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는 23일 현재 4만5천
5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국
방부가 추산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해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명에 이른다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
도 최근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날(23일) 유엔은 우크라이나에서 개
전 이후 5천50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엔아동기
금(UNICEF·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사상자도 972명에 달합니다.

공식 집계된 수치가 이 정도이고, 실제
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유럽에 흩어진 피란민 약 666 만 명

전쟁 발발 이후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
인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

니다.

유럽 곳곳으로 향한 인원만 665만7천
9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난민기구
(UNHCR) 17일자 통계에 나타났습
니다.

이 가운데 이웃나라 폴란드에서 피란
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127만4천130명
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독일에서 97만1천명, 체코에
서 41만3천212명이 등록됐습니다.

■ 가늠하기 어려운 종전 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급 시험'으로
규정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수도 크이우
함락에는 실패했지만 도네츠크와 루
한시크 등 동부 '돈바스' 지역 대부분
과 아조우해(아조프해) 거점 항구도
시 마리우폴, 그리고 헤르손 등 남부
전략 요충지들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고 오
히려 확전 의지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는 "분쟁을 끝낼 외교적 해법이 보이
지 않는다"며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

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맞대응 의지도 강합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최근 VOA 우크라이나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고 1991년 당시 국경의 완전한 회복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회복할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2014년도 아니고, 2022년 2월 24일도 아닌 1991년 당시의 영토"가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14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해이고, 2022년 2월 24일은 이번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리고 1991년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돈바스와 남부 영토를 회복하고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의 영토, 즉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곳들까지 온전하게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크림반도 곳곳에서는 의문의 폭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남부 영토 탈환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나토·서방 결집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일방적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된 것입니다.

현대 역사에서 꾸준히 중립노선을 지켜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이 급변하자, 중립과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포기하고 지난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기존 30개 나토 회원국들이 두 나라의 가입을 승인하는 의정서에 서명한 뒤, 현재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존재감이 줄고 있던 나토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세르비아와 헝가리 등 극소수 친러 정권을 제외하면,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면 나토 회원국 영역은 유럽에서 출범 당시보다 2배 늘어나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여겼던 발트해와 북극해마저 견제받게 됩니다.

유럽 밖에서도 러시아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주요 국가들이 줄지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자에서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러시아는 중국 등 10여개국을 제외하면 중진국 이상 국가 중 어디에서도 친구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NM Churches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명: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예배처소는 없으며 온라인예배로 대체되었음)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전도사: 전춘영(Esther Y. Pak)(505)298-0367
 인터넷 주일예배: 주일 오후 3시 (태평양 시간:2시)
 새벽 예배: 매일 오전 7시(편리한 시간 녹음파일로 참여)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교회 연락 주소: ABQ Korean Church; PO Box 50476
 Albuquerque, NM 87181-0476
 이메일: myungkil_lee@hotmail.com (이명길목사)
abqkoreanchurch@gmail.com(교회)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김지수 전례부장: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7월부터는 치마요의 이병권신부님께서 매달 오실예정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일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AmericaSouthwest.com 미국 남서부 지역 여행안내 사이트입니다. (운영/제작: 이경화)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주택용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umcABQ.co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QR Code 입니다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Voice.kumcabq.com 스마트폰에서 QR code Scan 하셔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	---	--	--	--

AmazingPaper-
Airplanes.com
이란 종이접기비행기
사이트로 연결되는
QR Code입니다.
(제작/관리: 이경화)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명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9/10월호 발행일 : 2022. 9. 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